

베일 벗은 기아차 'K9'

기아자동차의 간판급 럭셔리 대형 세단 'K9'이 베일을 벗었다.

기아차는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등 각계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9 신차발표회'를 열고,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했다.

K9은 기아차가 고급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십 세단을 목표로 개발했다. 지난 2008년부터 프로젝트명 'KH'로 연구개발을 시작해 4년5개월간 총 5200억원이 투입됐다.



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아차의 럭셔리 대형 세단 'K9' 신차발표회에서 정몽구(왼쪽에서 두번째)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K9'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벤츠·BMW 겨냥한 '한국형 프리미엄'

5200억 투입 4년5개월만에 개발 정몽구 회장 등 참석 신차 발표회

기아차는 K9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벤츠, BMW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의 차종들과 경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9의 디자인 콘셉트는 '직선의 단순함'에 고급감과 디테일을 더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는 불림과 간결한 선의 조화로 강인하면서도 역동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K9은 전장 5090mm, 전폭 1900mm, 전고 1490mm로 당당하고 날렵한 스타일을 갖췄다. 특히 휠베이스는 초대형급 수준인 3045mm로 여유롭고 안락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실린더에 고압의 연료를 직접 분사함으로써 고성능·고연비·저공해를 동시에 달성한 3.3 및 3.8 GDi 가솔린 엔진과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8단 후륜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

K9은 효율적인 차체 설계와 함께 뛰어난 연비 개선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동급차 대비 약 4.7% 감축했다.

기아차는 하반기부터 아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K9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국내에서 1만8000여 대,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2만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K9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

첨단의 신기술을 총 집약해 개발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갖춘 K9은 세계 시장에서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K9의 판매가격은 3.3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5290만원 △노블레스 589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6400만원이다. 3.8 모델은 △프레스티지 6340만원 △프레스티지 스페셜 6850만원 △노블레스 723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7730만원 △프레지던트 8640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K9'에 장착된 첨단 신기술 9가지

레이더 위험 감지 경고음·자동 감속 텔레매틱스 시스템, 스마트폰 시동

'K9'에는 9가지의 첨단 신기술이 담겨 있다.

앞유리에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 등이 표시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차량의 속도와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 빛을 비추는 각도 등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옆 차선 뒤쪽에서 고속으로 접근

하는 차량을 감지해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편리하게 변속 조작을 할 수 있는 '전자식 변속 레버'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은 운전 환경에 따라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등을 선택하면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 등이 통합 제어되며 상황에 맞는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차량 통합제어 시스템'은 레이더로 차량 전방의 주행 상황을 감시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고음을 보내고,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역할을 한다.

편의 기능으로는 4개의 카메라 영상을 합성해 차량의 전후좌우 360도를 모두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폰으

로 먼 거리에서 시동을 거는 등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유보'를 탑재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스티어링 휠 햅틱 리모컨'은 '12.3인치 풀 사이즈 컬러 LCD 클러스터' 화면의 각종 시스템 설정시 운전자의 손끝으로 조작 반응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변속 레버

태양광·풍력 발전에 자연채광

재경건설, 광주 첨단지구에 친환경 오피스텔 '에코타워' 건립

광주 첨단지구에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춘 친환경 프리미엄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재경건설(주)은 2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호수공원 인근에 오피스텔 '첨단 에코타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투시도)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3,59㎡(14평)~31,57㎡(18평) 규모 906실로 구성됐다.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부터는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달 말께 착공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5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에코타워는 자연형 설계가 강점이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아트리움(건물 중앙 높은 곳에 유리 로 지붕을 한 넓은 공간) 건축물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좋다.

이 오피스텔은 입주자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마당'을 특화했다. 확 트인 라운지뿐만 아니라 중간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고 벤치·파고라를 설치해 옥상정원과 마당을 꾸몄다. 입주자들이 공동체와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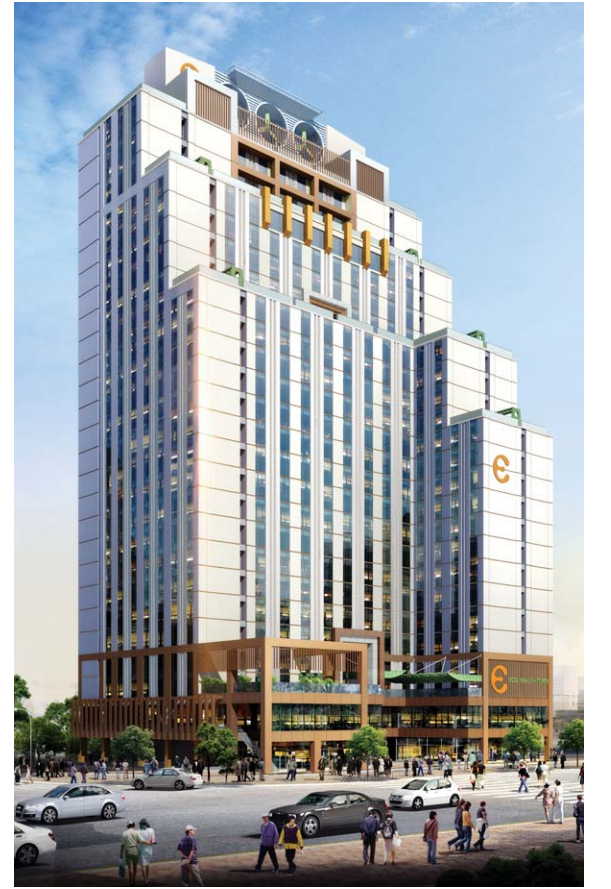
또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발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축물 남측 벽면에 외장재 대신 태양광모듈 552개를 설치했고, 최상층에는 풍력발전기 3대를 가설해 전력을 생산한다.

이들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하공간의 조명을 밝히는데 사용된다. 자체 전력을 생산해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내에 헬스클럽과 비즈니스센터도 갖췄다. 각 호실마다 욕실·거주·옷장·주방 기구·시스템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다.

특히 에코타워에 걸맞게 페인트·바닥재·벽지 등을 기능성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해 건강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명도 LED로 품위를 높였다.

정부청사와 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전자부품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과 첨단산단·하남산



단·장성 나노산단 등이 가까이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 교통망도 뛰어나다. 광주 상무지구를 연결하는 빛고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동림IC·북광주IC·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쌍암호수공원이 있고 롯데마트·이마트·CGV·유스퀘어 등 쇼핑·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문의 062-971-818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어린이 날 한마당 잔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일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신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승촌보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등을 갖춰놓고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승촌공원 축구장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개방되며, 어린이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죽산보에서도 페이스페인팅 행사와 연날리기 행사 등이 개최된다.

김일평 익산국토청장은 "혼잡한 도심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올 4월까지 49명...전년 동기비 2배 늘어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보다 약 2배 늘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올해 가입자 평균 나이는 75세, 평균 집값은 1억1700만원, 월 평균 연금액은 54만원으로 분석됐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50% 수준의 신규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광주·전남의 경우 4월에 이미 2011년 전체실적의 65%를 넘어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99.07 (+17.08)
▲ 코스닥지수	485.54 (+6.65)
▼ 금리 (국고채 3년)	3.45% (-0.01)
▼ 원·달러 환율	1,227.50원 (-2.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새벽반(6:00) 환영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